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4주일(순교자 성월)

제27권 42호 (다해) 2007.9.16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묵상]



아버지 모습

어릴 때 아버지의 모습은 엄격한 아버지

자랄 때 아버지의 모습은 고생하는 아버지

어른일 때 아버지의 모습은 무덤덤한 아버지

오늘은 한 마리 양 같은

나를 안고 기뻐하는 아버지.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방학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철웅 베드로, 방근호 베드로, 김중돈 스테파노 김테레사와 박벨라뎃타
	(생)민마르코, 방우리 레지나, 구명순 테레사 이준복 야고보, 최기남 야고보와 옥희 테레사 엄은섭과 도로테아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이석중, 황보금 마리아, 김중돈 스테파노, 김순희 헬레나와 김이기 요셉, 김정은 마리아 정안나, 이영자 마리아
	(생)윤효숙 마리아, 이중민 요셉, 최예경 안나 홍석철 모세와 정란 클라라, 배난군 세레나 김종렬 아가비도 가정, 김미성 미리암, 박지상 아우구스틴 엄은섭과 도로테아 가정, 장숙환 수산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32,7-11.13-14

화답송 ㉠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전례성가 89, 연중 제24주일 C해>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시오니 내 죄를 없이 하소서. 내
잘못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허물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하느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당신의 면전에서 날
내치지 마옵시고, 당신의 거룩한 일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내 입시울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당신의
찬미 전하오리다. 하느님, 나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하느님은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아니
보시나이다.㉣

제 2독서 티모테오(Timothy) 1,12-17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말기셨도다.㉡

복음 루카(Luke) 15,1-32 <또는 15,1-10>

영성제송 주 하느님, 주님의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니까!
사람들이 주님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4	345
봉헌	하늘의 태양은 못되도	264,197
성체	He knows my name	303,300
파견	339	108

3. 한국 천주교회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

오늘날에도 한국 천주교회는 순교자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직접적인 복음 선교 활동은 물론이려니와 여러 가지 사회 복지 활동, 사회 정의 수호와 인권 옹호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천주교 신자들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드러내고, 그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들은 477만 명(2006년 말 통계)이라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다.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 형제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구실을 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하게 민족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여 이루어졌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보존하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은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에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사와 순교 성인들에 관한 책들을 읽고 우리 신앙 선조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천주교에 대하여 소개하고, 함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도록 권유해야 할 것이다.

4. 천주교 소개

천주교는 사람들이 하느님과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한다. 교회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장소나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매우 인격적인 용어다. 그런데 신자들이 모이려면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다. 그 곳이 바로 성당이다.

▶성당(聖堂)은 하느님의 집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고, 신자들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와 수련의 집으로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성당에 들어갈 때 신자들은 손에 성수(聖水)를 찍어 성호경을 바치면서, 생각과 행동이 오직 하느님께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청한다. 성당의 중심은 천주교의 공적 예배인 미사가 봉헌되는 제대(祭臺)이다.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제대 앞에서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한다. 통상 성당 안에는 빨간 등이 켜져 있는 감실(龕室)이 있다. 감실은 신자들이 미사 때에 받아 모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 곧 성체를 모셔 놓은 곳이다. 요즈음은 감실을 따로 마련하여 성체를 모셔두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성체조배를 권장한다. ◆CBCK제공 <계속>

회개는 기쁨입니다

청소년 상담학을 공부할 때 강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 가출하려고 마음을 정한 청소년들은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밤늦게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자기 집에 불이 켜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집으로 돌아오고, 꺼져 있으면 가출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켜 있는 불빛에서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 형제자매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루카 15,1-32)에서 나오는 작은아들의 생각과 마음은 모두 바깥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졸라서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 먼 고장으로 떠납니다.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흥청망청 모두 탕진하자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고장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꼬투리 열매로라도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작은아들은 정신이 난 것입니다. 외부로 나가 있는 삶의 방향이 이제 자기 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는 갈등의 한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를 하면 변하거나 자신을 살펴야 할 이유를 잘 찾

지 못합니다. 또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며,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고, 굴욕을 겪음으로써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갈등 안에 있는 자신을 들여다 보면서 일방적이었던 태도에서 반대의 입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의 모습 중에서 전혀 보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신을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회개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합니다. 작은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작은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좋은 옷을 입혀 줍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줍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을 작은아들은 느낀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체험은 세상과 이웃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리코의 자캐오는 회개한 후 단절되었던 이웃과 화해를 합니다. 그 징표로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루카 19,1-10). 회개를 통하여 그는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기쁨입니다.

● 정원순 토마스 데 아퀴노 수사 신부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회>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데레사	최진수 에오세비오	해설자	송주영 크레센치아	엄영숙 마리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박진수 스테파노	오태환 바오로	제1독서자	우경석 사도요한	유철희 바오로	오세원 아타나시오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네다	주일학교 데이빗 김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황지영 안젤라	주일학교 크리스티나윤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3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6,465단 ☞ 총 합계: 190,100단

 ◆ 2007 남가주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주님을 향해 불타는 신앙을 증거했던 한국순교자들을 높이 드러내는 순교자 현양대회가 우리본당 주최로 열립니다. 많이 참여하여 선조들의 뜻을 기립니다.
 ● 일시: 9월30일(주일), 오전 10시30분
 ● 내용: 김대건 성인 유해 거동, 대미사, 점심식사, 성극 공연(정하상 바오로 성인 생애), 순교 자료전시
 ● 주례: LA대교구 Alexander Salazar 주교님,
 San Pedro 지역

- ◆ 한가위 추석명절 합동 연미사
 9월25일(화)은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이틀 앞선 23일 주일미사에 조상님들과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한 합동연미사를 봉헌합니다.
 ● 연도와 분향: 9월23일(주일) 아침 및 낮미사
 ● 지향하실 분들의 이름을 사무실에 제출해주세요.
- ◆ 주일학교 기금마련 음식부스
 ● 대건회와 원서부부회가 주일학교 기금마련을 위해 9월30일(주일) 남가주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때 음식부스를 마련, 각종 음식을 판매합니다.
- ◆ 최림 안젤라 피아노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본당 주일 아침미사 반주자로 봉사하는 최안젤라 자매가 이번 리사이틀에서 바흐, 모차르트, 슈만의 피아노곡을 연주합니다.
 ● 일시: 9월30일(주일) 오후7시, USC Newman Recital Hall

- ◆ Homeless People 도울 봉사자 찾습니다.
 ● LA 다운타운(4가+5가)의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데 동참할 형제자매들을 기다립니다.
 ● 우리 본당의 첫 봉사는 10월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 283-5879 박홍룡 요셉(사회복지분과위원장)
- ◆ 한국어 혼인전 강좌
 ♥ 일시: 9월 29일(토) 오전 8시~오후5시
 ♥ 장소: 성 마태오 성당 강당
 ♥ 문의: 성 마태오 성당 사무실 ☎ 818-242-4377
 ※ 신청: 9월24일까지(신청서는 본당 사무실에 비치)
-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기금모금 골프대회
 ● 9월29일, 다운리 Rio Honda Golf Club
 ● 우리 본당 골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최기남 야고보 백삼위 골프회장 ☎ 310-569-3940
-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중입니다
 ● 개학: 9월30일(주일), 학생미사 오전 9시30분
 ● 등록기간: 9월23일(주일)까지
 ● 대상: 유치부(K)~12학년
 ● 1년 등록비: 첫째아이 \$100, 둘째아이 \$80, 셋째아이 \$60, 넷째/다섯째는 무료(23일 이후 등록시는 \$10 추가되오니 미리 신청합니다.)
 ※자모회비: 가정당 1년에 \$40

♥ 감사합니다 ♥
 가을이 오는 소리와 함께 우리 성당 건물이 산뜻하게 단장됐습니다, 이는 정완석 베드로 형제님의 희생봉사로 지난주 5일간 성당건물 안팎을 페인트 칠한 덕분입니다, 특히 주일학교와 한국학교 선생님들은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교실을 깨끗이 사 용하도록 가르칩시다, 성전을 아름답게 가꿉시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김기정	김옥보	김원호	김일선	김재연
	김종렬	김준호	김택수	김형순	민소예	박상준
	박준구	배기엽	서성용	소성덕	신경훈	오진자
	우영희	유인섭	유희연	이경용	이명자	이민상
	이병호	이영희	이일길	이정희	이호세	임현기
	장수창	장숙환	장영진	장정진	정열모	차인수
	최의수	한창주	황학수	한길선례		
	합계 : \$ 4,370					
미사헌금 : \$ 2,756.50						

성전헌금	김기정	김옥보	김원호	김일선	김재연	김종렬
	김준호	김택수	김형순	민소예	박상준	박준구
	배기엽	서성용	소성덕	신경훈	오진자	우영희
	유희연	이경용	이명자	이민상	이병호	이영희
	이정희	이호세	임현기	장수창	장숙환	장영진
	장정진	차인수	최의수	한길선례		
	합계 : \$ 18,350					
	감사헌금 : 이영록 안드레아 신부님, 서병교 라파엘, 익명					

공지 사항

◆ 양业协会 친목을 위한 간이 축구 회식

- 9월16일(오늘 주일) 낮 12시 30분~2시30분 친교장
- 본당의 중추, 양业协会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9월16일: 토런스 북 1,2반 (장터국수 \$3)
- 9월23일: 성모회 (추석맞이 떡 나눔)

남가주 소식

◆ 2007년 “말씀의 초막절”

- 일시: 9월16일(주일), 오후 4시30분~9시30분
- 내용: 미사, 식사, 특강, 축제 한마당, 마침기도
- 평일 축제기간: 9월17일(월)~22일(토)
- 장소: 미주 성서모임 센터 ☎ (714)521-1345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 LA 대교구 다민족 대미사 및 문화축제 한마당

- 일시: 9월22일(토), 오전 10시
- 장소: LA 대교구 주교좌 대성당, LA County Mall
555 W. Temple St. LA

◆ 산호세 한국순교자 성당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 기념미사 및 축하식: 9월23일 오전 10시 30분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
- 주례사제: 페트릭 맥그라 주교(산호세 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수원교구 총대리)
- ※ 성당주소: 531 E. Weddell Dr., Sunnyvale, CA 94089

◆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협회 정기 전시회

- 9월14일(금)~9월27일(목)
- Lee & Lee 갤러리(3130 윌셔 불러바드 #502)
- 28명의 신자 화가들이 출품하는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1열왕 9장3절) 입니다.
- ☎ 213-365 -8285

◆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 동교회 제1회 정기 연주회

-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 동교회(Jubilate Korean Catholic Choir)가 제1회 정기연주회로 교회의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자선공연을 갖습니다.
- 공연일시: 9월28일(금) 오후 7시 30분
세인트 빈센트 성당(621 W. Adams Bl. L.A.)
- 지도신부: 박상대 마르코 신부(백삼위 한인성당 주임)
지휘: 김경숙 클라라(성 마리아 성당)
- 문의: 황베로니카 ☎ 310-279-8184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가정의 날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변혜경 율리아나 787-7493 9/7(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례 스프라스터카 782-1025	한길선례 스프라스터카 782-1025 9/14(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김지희 체칠리아 539-3396 9/20(목)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시문, 김철수 320-2425 9/15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구패트릭&마리아나 214-8468 9/23(주일) 11시 미사후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오호순 모니카 213-633-3366 9/10(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엄새종 그레고리오 373-5662 9/14(금) 오후 8시
	2	임진희 한나 720-7898	이경수 헬레나 530-0357 9/11(화)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325-6810	임형미 사비나 325-681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	박정희 마리아 715-2609	황지영 안젤라 782-0844 9/14(금) 오후 7시. 성당
	2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차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9/29(토), 오후 6시, 리돈도 비치 H
	2	김희복 아베스 326-2283	서창호 바오로 257-1784 9/15(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최베드로& 오세피나 997-9006 9/14(금), 오후 7시30분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아나스타시아 544-9460 9/14(금) 오후 7시 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서병교 라파엘 544-6377 9/7(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9/14(금) 오후 7시30분

열손가락을 깨물어라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 고 했다.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 한결같다는 뜻이다. 1920년경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살았던 막스 켄달의 열 손가락이 모두 엄지였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통상 사람의 열 손가락은 각각 다른 손가락이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등 손가락 각각의 모양과 기능이 다양하듯이 자식들도 매 한가지다. 부모의 마음에 들어 자라게 되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속을 있는 대로 다 썩히고 끓이는 자식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정은 한결같으며, 오히려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면서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베푼다.

오늘 전례의 제1독서에서 보듯이 하느님의 자녀들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탈출 32,7-14)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야훼로부터 계약의 판을 받으려 할 때,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불충을 저질렀다. 그러나 모세의 간곡한 애원을 들어 하느님께서는 분노와 재앙을 거두셨다. 사실 모세의 애원보다는 하느님 자신이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백성들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그 뿐만 아니다. 제2독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했던 죄인 중에 큰 죄인인 사울까지도 하느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사도로 삼으셨다. (1티모 1,12-17) 오늘 복음도 예외는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그분은 비유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신다.

루카복음 15장은 복음사가 고유의 하느님 사랑과 자비에 관한 복음으로서 세 가지 비유로 가득 차 있다. 잃은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4-7절; 마태 18,12-14), 잃은 은전을 되찾고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8-10절),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11-32절)가 그것이다. 세 비유는 이렇게 잃은 것을 되찾고 되찾은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것에 비유될 수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의 청자(聽者)로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비유의 내적 의도는 바리사이와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지향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율법과 종교의 윤리성과 순수성을 구현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1-3절)

누구나 무엇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만사를 제쳐두고 잃은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찾지 못하면 밤잠을 설치기도 했을 것이다. 또는 집을 나간 자식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기도 했을 것이고, 외도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기원하며 속을 태우기도 했을 것이다. 만백성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마찬가지다. 하느님도 잃은 것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요, 죄인들을 회개로 초대하시는 분이시다. 바리사이와 율사들에게는 스캔들이 될지는 몰라도 하늘에서는 죄인의 회개와 잃은 것의 되찾음이 큰 잔치의 이유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잔칫상이 꼭 차기를 바라신다. (14,23)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왔다 해도, 은전 10개중에 1개가 모자란다고 해도, 비록 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유산을 챙겨 떠나갔다 하더라도, 그 잃은 것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은 찾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통해 예수님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실 뿐 아니라, 이참에 바리사이와 율사들의 그릇된 하느님 상을 고치자는 것이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잃은 양 한 마리이고, 잃은 은전 하나이며, 자신의 힘과 재산을 믿고 가족도 이웃도 하느님도 잊고 지내는 탕자(蕩子)에 속한다. 특히 탕자의 비유에 우리 자신을 자주 비취볼 필요가 있다.

◆ 백삼위 한인성당 박상대 신부